



**전주비전대, 교직원 동계 워크숍 개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9~10일 양일 간 비전관 대강당에서 교직원 동계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중장기발전계획과 포스트 혁신지원사업의 연계성 및 사업 효과성 강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와 교직원의 공감대 형성과 지속 가능한 대학 발전 방향을 능동적으로 찾기 위함이다.

워크숍은 오미크론 변이확산에 따라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전주비전대 교직원 및 혁신지원사업단 사업 관계자 270여 명이 참석한다.

1일차에서는 ▲혁신지원사업(1유형)과 대학 혁신의 방향(박주희 학회장)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고도화 및 산학협력 선도모델(최승훈 전주비전대 산학협력단장)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전략 (동서대학교 김준호 교수)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둘째날은 ▲후진학선도형사업(3유형) 평생직업교육의 방향(김포대학교 한광식 교수), ▲1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1·3유형) 성과공유 (김수현 전주비전대 대학성관리센터 부센터장) 등의 포럼과, 정성훈 대학혁신본부장의 '대학 현안 공유 및 의견수렴'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정상모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성교육, 국제화 지원, 첨단 인재양성 등의 비전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로 빠르게 변화하는 대학환경에서 한계 가 학생중심의 여러 가능성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군산대 학생상담센터, 마음백신 키트 물품 전달**

군산대학교 학생상담센터가 2021 학년도 동계 방학기간 동안 재학생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전학생들과 함께 마음백신키트(온열안대, 비타민D) 물품을 전달 중이다.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1차 개별 전학생 상담 실시 후 현재 생활을 점검하고, 2차로 필요한 상담프로그램 연계 및 마음백신키트를 제공해 마음 안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학생상담센터는 전문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원이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성격, 진로, 대인관계, 가족 등의 주제로 고민이 있는 재학생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매년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학생상담센터 황재원 센터장은 "학내 구성원들의 마음건강 관리를 위해 센터 상담원들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보호종료아동·청년 자립지원금 후원**

현대옥, 아동복지시설 청년들 홀로서기 지원

전주 콩나물국밥 프랜차이즈인 현대옥(대표 오상현)이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다 홀로서기에 나서게 된 18세 청년들을 응원하고 나섰다.

오상현 현대옥 프랜차이즈 대표는 9일 전주시청을 찾아 후원의 뜻을 담은 '현대옥 수오지심(善惡之心) 자립지원금' 600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금은 18세에 가장이 된 아동복지시설 보호가 종료된 청년 6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오상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원금이 일시적이고 시혜적인 부분을 넘어 청년들의 미래 삶을 펼쳐는 데 있어 하나의 계기 또는 가슴과 삶에 수오지심의 자제가 깊게 새겨 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옥은 1979년 문을 연 콩나물 국밥 맛집으로, 현재 전국 150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했다. 전북 최초로 서빙로봇을 도입해 물 반찬 식사류를 로봇이 전달하는 등 이색적인 식당



운영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현대옥을 운영하며 2세대 현대옥을 출범시킨 오상현 대표는 그동안 전주시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기탁 등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난해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노산 육군훈련소 위문**

장영달 우석대학교 명예총장이 지난 8일 노산에 위치한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장병들을 위문하고 박원호 소장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문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장영달 명예총장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훈련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문 방문에는 이희택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과 배구선수 출신 김희복 중원대 교수, 박찬숙 전 국가대표 농구 감독 등이 동행했다. /정은성 기자

**조대현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엄마의 밥상'에 1000만원 기부**

지난해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에 새로운 동자를 틈 조대현 마취통증의학과이원이 개인 1년분을 기탁해 아침밥을 굶는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밥상을 함께 차리기로 했다.

전주시는 조대현 마취통증의학과의원(대표원장 조대현)이 9일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맡겨져 결식아동을 위한 따뜻한 엄마의 밥상을 준비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조대현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될 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설공단, 서원시니어클럽과 노인 일자리 맞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돕기 위해 전주서원시니어클럽과 또 한 번 손을 잡았다.

공단은 9일 전주서원시니어클럽과 ESSG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서원시니어클럽이 추진하는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 보충, 건강개선, 사회관계 증진,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공단은 11월까지 10개월간 만 60세 이상 노인 총 10명을 공단이 운영하는 5개 체육시설에 배치해 방역과 감염예방 업무 지원, 방문자 체크와 행정업무 지원, 민원업무 지원 등을 맡게 할 예정이다.

송민수 체육관운영부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감염확산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통해 시설별 방역 인력을 충족하는 동시에 노인 사회활동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 뜻 깊다"며 "앞으로도 사회약자 배려와 상생 활동을 더 확대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서수초 김신철 교장, '아름다운교육공동체상' 포상금 장학금 기탁**

군산 서수초등학교 김신철 교장은 지난 8일 '제8회 아름다운교육공동체상' 포상금으로 서수초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 교장은 40여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사가 행복하고 학생이 즐거우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었다는 숭선수범했다.

특히 학교 비전을 '코로나 우울감 극복을 위한 감성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강화와 건강하고 바른 정신 및 신체를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에 두고 이를 반영한 교원 연수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성 up 감성up 체력up 프로그램을 진행해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런 뜻깊은 교육활동에 힘입어 2021년도 '제8회 아름다운교육공동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상은 지역사회에 귀감이 될 교육자를 발굴해 스승에 대한 존경을 일깨워주고, 교육자들에게는 자부심과 보람을



심어주기 위해 제정됐다. 김신철 교장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학업에 매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아름다운교육공동체상 포상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인사**

**새민금개발청**

◇장금진 전보 ▲대변인 한상환 ▲운영지원과장 윤용태 ▲기반시설과장 허홍재 ▲국무조정실 과견 김용태

## 제8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2월 10일(목)~11일(금)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주최: 전주매일신문사**  
**주관: 전라북도 스키협회**  
**후원: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 덕유산리조트, 전라북도체육회**

**\*\*참가 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사)**